

• 시간: 오전 10시 30분 • 사회/설교: 서일원 목사

사도신경 다같이

찬 양 다같이

1. 기대(주 안에 우린 하나)
2. 선한 능력으로

기 도 다같이

- ① 저희 각자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며 2021년을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 ② 세상의 덧없는 영광에 속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교묘한 술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 ③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까지 기도하도록 도우소서.
- ④ 주님 말씀으로 저희가 내뱉는 말을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 ⑤ 날로 강건해져서 어떤 삶의 문제들이 무섭게 달려든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당당히 맞서게 도와주옵소서.
- ⑥ 저희 각자에게 베풀어주신 주님의 은유를 잊지 않고 다른 이들을 은유하게 대하게 도와주옵소서.

성경봉독 서일원 목사
로마서 5장 5-6절 (신약 p.245)

설 교 설교자
“우리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광 고 사회자

축 도 서일원 목사

- 찬양과 중보기도
- 말씀 나눔



듣고 기다리는 삶

엘리아 예언자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과 싸워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것을 본 백성들을 바알 제사장들을 모두 죽입니다. 하지만 “너를 죽여버리겠다”(왕상 19:2)는 이세벨 왕비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영적 제사장 역할을 하던 엘리아 예언자는 일순간 두려움과 낙담에 빠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눈을 피해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언제나 광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죽음을 피해 도망하던 곳입니다. 더 이상 삶의 희망을 잃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도피하던 장소입니다. 한편 위험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과 일대일로 독대하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아 예언자는 호렘산에 도착을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던 엘리아를 일으켜 세우셔서 호렘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호렘산에서의 하나님은 갈멜산에서와는 다른 방법으로 엘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은 기적으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호렘산에서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다. ‘지진’이나 ‘불’과 같은 명백하게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호렘산에서의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왕상 19:12)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광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만한 방법으로 나타나셔서 모든 일들을 정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에서,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놀라운 현상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사람에게 침묵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모이는 대중 집회가 어려운 이때에, 홀로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목회와 신학』, 2021년1월, 61).

E.M. 바운즈는 말하기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성숙하도록 만든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은혜를 받은 데서 안주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예수님처럼 동트기 전에 일어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막 1:35).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온전히 순종하고자 힘썼다고 말합니다(『생명의 삶』, 2021년12월, 8). “듣고 기다리는 삶”은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시며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삶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참된 필요한 모습입니다. 바이러스 백신이나 치료제만큼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I. 공통기도제목

1.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2. 새해를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열어나가게 하소서.
3. 매일 주님 앞에 나가 듣고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4. 후원하는 현지 목회자 가운데 함께 하소서.
 - ① Bohdan Roháček - Michalovce
 - ② José Calvo Aguilar - Žilina
 - ③ Martin Kačur - Spišská Nová Ves
 - ④ Peter Prištiak - Hermanovce nad Topľou
5. 형제교단에 소속된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소서.
 - ✧ Prešov 교회 - Martin Jurčo 목사

II. 주간기도제목

일	주제	기 도 제 목
3일 (주일)	예배	1.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찾는 회심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2. 마음과 다하여 예배하며 진정한 영적 변화가 있게 하소서.
4일 (월)	감사	1. 언제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소서. 2. 성경을 묵상하고 자신의 삶을 비추어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5일 (화)	교육	1. 교사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고 사랑으로 부서를 이끌게 하소서. 2. 가정, 학교, 교회에서 사랑 많은 어린이들로 자라게 하소서.
6일 (수)	집사	1. 세워진 집사들이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하게 하소서. 2.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남녀선교회에 간섭하여 주소서.
7일 (목)	선교	1. 무신론이 기승을 부리는 유럽 땅에 영적 변화가 있게 하소서. 2. 영적으로 침체된 슬로바키아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8일 (금)	가정	1.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가 되는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2.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9일 (토)	성경 말씀	1. 주님의 오심을 경건함 마음으로 소망하며 준비하게 하소서. 2. 성경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게 하소서.



큐티나눔말씀 Word for Quiet Time

날짜(요일)	본문
1월 3일(주일)	눅 1장 57 - 80절
1월 4일(월)	눅 2장 1 - 20절
1월 5일(화)	눅 2장 21 - 40절
1월 6일(수)	눅 2장 41 - 52절
1월 7일(목)	눅 3장 1 - 14절
1월 8일(금)	눅 3장 15 - 38절
1월 9일(토)	눅 4장 1 - 13절

◇ 주일모임안내

모임	안 내
오전예배	오전 10시 30분(온라인)
학생회	
어린이 주일학교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임을 잠정중단합니다.
오후 성경공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임을 잠정중단합니다.

◇ 주중모임안내

모임	안 내
화요 성경공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임을 잠정중단합니다.
수요기도회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임을 잠정중단합니다.



광고 Announcement

• 환영

슬로바키아 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다시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예배 안내

슬로바키아 정부 지침에 따라 오늘부터 예배를 비대면 예배(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 비대면 예배(온라인 예배) 안내

- ① 비대면 예배는 줌(zoom)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예배하겠습니다.
- ② 예배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접속주소(URL)를 매주일 오전에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③ 예배 시간은 10시 30분입니다. 예배 시작 10분전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녀선교회 안내

올 해 남녀선교회가 다시 조직될 예정입니다. 조장님들을 대신해 일할 임원진들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예배 위원 안내

대면 예배가 재개되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계좌 안내)

- 은 행: VÚB BANKA
- 예금주: KÓREJSKÝ ZBOR CIRKVI BRATSKEJ V ŽILINE
- IBAN: SK36 0200 0000 0023 3032 5456



질리나한인교회
Korean Church of CB in Zilina

2021년 1월 3일
(1주)

KÓREJSKÝ ZBOR CIRKVI BRATSKEJ V ŽILINE

NA SIHOTI 4, 010 01 ŽILINA, SLOVENSKO

홈페이지: www.zilina.kr / 담임목사연락처: 0903 415 821

☆ 교회창립일: 2004년 7월 10일

2021년 교회 표어: Coram Deo (하나님 앞에서)

- 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다.
- ②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섭시다.
- ③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어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시 16편 8-9절)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서일원

☑ 서리집사: 김영수, 김은혜, 박영환, 서제원, 정세영